

『도와즈가타리(とはずがたり)』에 보이는 여주인공의 자기모순과 집착

- 출가 후의 내면 분석을 중심으로 -

임영주*

ramirezi@hanmail.net

차례

1. 머리말
2. 속세 도피로서의 출가와 속세에 대한 향수
3. 인생무상의 표방과 속인과의 교류
4. 고후카쿠사인과의 재회 속에 드러난 執心
5. 고후카쿠사인의 崩御와 執心の 절정
6. 맺음말

요지

本稿は『とはずがたり』の作者、二条の出家にあらわれた自己矛盾と執着に関する一考察である。二条は自分の出家が「煩惱を抱かせた都からの逃避であった」と告白しているが、彼女の修行は決して浮世と離れたものではなかった。都を懐しんでは涙ぐみ、俗人との交流も絶えなかった。これは遁世の道を選んだ人の身分にはそぐわない内部の矛盾である。都が二条において「場所としての過去」であったとしたら、後深草院は「人としての過去」であった。比丘尼として後深草院への未練から脱する事のできず、妄執と言うべき執心はますます深まる一方であった。これもまた一つの自己矛盾であると言えるであろう。鎌倉時代を生きた女性、二条は出家の原因や契機などを明らかにしていない。その結果、出家を廻る種々の問題が山積している。そこで本稿は出家後の記録を通して出家の原因、理由などを分析し、果たして二条の出家が持つ自己矛盾と執着はどこから派生したか、出家の持つ意味は何であろうかを考察した。脱俗の身で都と後深草院を抱いてきたので、煩惱は必然であった。そして煩惱は自己矛盾となって現れた。俗世は煩惱のもとながら郷愁でもあった。俗世の中心には後深草院があり、郷愁の究極的な対象は後深草院と言えよう。それゆえに二条の出家は矛盾するしかなかった。本稿は出家後、二条の内面省察に片寄っただけに、今後二条を廻る外部環境、事件の影響について触れたい。

키워드 : 니조, 출가, 자기모순, 집착

* 고려대학교 일어일문학과 박사과정

1. 머리말

쇼오(正応2)년(1289), 고후카쿠사인니조(御深草院二条, 이하 니조)는 출가한 모습으로 『도와즈가타리(とはずがたり)』 3권의 초두에 등장하고 있다. 니조는 1289년 이전, 이미 출가를 감행했으나 그 구체적 시기는 밝혀진 바 없다. 출가의 시기가 불투명한 만큼 니조의 출가를 둘러싸고 출가의 동기와 시기, 그 목적 등, 다양한 의문점이 산재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출가 후의 기록을 토대로 하여 출가의 동기, 원인 등을 지적하고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에 출가 후에 관찰할 수 있는 니조의 자기 모순과 집착이 무엇으로부터 유래하였는지, 자기모순과 집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자기모순」이란 니조 스스로 출가자라는 자신의 신분을 내세우며 인생무상을 표방해왔으나 수행생활 속에서는 이와는 배치(背馳)되는 모습, 즉 속세에 대한 향수와 번민을 보이며 이를 속세적인 수단에 의탁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니조의 태도를 가리킨다. 그리고 「집착」이란 출가하여 탈속의 신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속세의 인연, 고후카쿠사인을 향해 키워 온 니조의 執心을 뜻한다.

이러한 「자기모순」이나 「집착」을 안고 있는 니조의 모습은 출가자의 본분과는 거리가 멀다. 『도와즈가타리』를 적고 있는 니조도 이와 같은 자기 모순적인 내면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니조의 내면은 執心으로 기울어가기만 했다.

본고에서는 니조로 하여금 이토록 심한 자가당착에 빠져들게 한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그러한 원인과 출가 동기와의 상관관계는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2. 속세 도피로서의 출가와 속세에 대한 향수

니조는 자신의 출가에 대하여 명확한 이유나 동기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출가 후 그녀의 심정 고백과 행적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추찰할 수 있다. 다음은 출가 초기의 심정을 담은 부분이다.

내 마음 속 서글픔도 이제 막 시작된 것처럼 여겨지고, 홀로 생각하고 홀로 슬퍼하며 탄식의 눈물을 달랠 기회가 될까하여 京都 밖까지 찾아왔는데 속세의 괴로움이 몰래 뒤를 밟아온 것 같아 슬퍼서, 삼나무 암자, 소나무 기둥과 대밭을 치고서 괴로운 이 속세를 벗어나고 싶구나.¹⁾

(心の内の物悲しさも、ただ今はじめたるやうに思ひ続けられて、ひとり思ひ、ひとり嘆く涙をもほすたよりにやと、都のほかまで訪ねこしに、世の憂きことは忍び来にけりと悲しくて、

杉の庵松の柱に篠すだれ憂き世の中をかけ離ればや)(卷4 p.160~p.161)

재속(在俗) 시의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경도 즉 수도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으로 왔으나, 내면의 슬픔은 여전한 듯하여 그 탄식을 和歌에 담아 토로하고 있다. 속세의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출가하였으나 어느덧 괴로움은 자신을 쫓아 먼 이역까지 도달해있다. 괴로움의 주체는 니조이며 또한 괴로움은 니조로부터 파생된 감정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니조가 아무런 행동력없는 괴로움에 의지를 부여하면서까지 자신과 개별적인 개체로 서술한 까닭은 무엇일까. 괴로움의 고의적인 인격 부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해보고자 한다. 우선 어디를 가든 자신은 속세의 번민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 속세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는 것, 즉 속세의 니조 구속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는 역으로 육체는 수도를 떠나 있으며 정신은 결코 수도를 떠나지 않고 있음을, 수도를 떠날 수 없음을 니조 스스로 호소하고 있다는 해석에 더욱 무게를 두어야 할 것이다. 이는 아래에 출가 후 니조의 내면고백을 담은 본문의 다른 부분을 인용함으로써 보충하고자 한다.

니조의 심정고백이 밝히고 있듯이 그녀의 출가는 동기나 목적이 그다지 순수하지는 않다. 현세의 괴로움과 슬픔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출가이며 눈물로 점철된 삶을 달래기 위한 하나의 기회로써 출가이다. 그러나 이러한 수행여행, 즉 출가가 니조의 내면의 고통을 떨쳐내기에는 역부족이었던 듯하다. 오히려 이전보다 심화된 회한과 탄식에 침잠(沈潛)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녀가 밝히고 있듯이 출가는 세속적인 감정의 극복이나 말소가 아닌 위안(달랠 기회)인 것이다. 따라서 니조의 출가는 속세의 감정과 번뇌의 연장인 것이다.

1) 본문의 인용은 岸田依子·西沢正史校注 『とはずがたり』(三弥井書店, 1995)에 의함. 번역에는 久保田淳校注·訳 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 『とはずがたり』(小学館, 1999), 次田香澄全訳注 『とはずがたり(上),(下)』(講談社学術文庫, 2002)를 참조하였다.

이와 같은 수도를 향한 집심은 다음의 인용을 통하여 확인해 진다.

여관 주인 아래에 유녀자매가 있었다. 거문고와 비파 따위를 툭기고 풍치가 있어서 수도에서의 옛날이 절로 떠오르는 듯한 기분이 들어 잔을 권하고, 유희를 즐기는데, 유녀 자매 중 언니로 보이는 자가 매우 근심에 잠긴 모습으로 비파로 기분을 달래는 듯 하였다. 자칫하면 눈물을 쏟을 듯한 것이 내 신세와 비슷한 것 같아 눈길도 멈추는데, 유녀 또한 내가 승복의 색과는 다른 분홍빛의 눈물로 소매를 적시고 있었던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던 걸까, 잔이 놓여진 작은 쟁반에 노래를 적어 건네어 왔다.

당신께서 출가를 결심하신 심증이 대체 어떠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무언가 깊은 생각이 있으시겠지요.

실로 생각지도 못한 정취가 배어있어,

후지산의 봉우리는 그 이름도 사랑을 하다라는 스루가쿠니(駿河国)에 속하므로 수심의 불로 인해 연기가 나는 것이겠지요. 제가 출가한 것도 사랑으로 인한 수심 때문 이랍니다.

(宿の主に若き遊女姉妹あり。こと、琵琶など弾きて情けあるさまなれば、むかし思ひ出でらる心地して、九献など取らせて遊ばするに、二人ある遊女の姉とおほしきが、いみじく物思ふさまにて、琵琶の撥にてまぎらせども、涙がちなるも、身のたぐひにおぼえて目とどまるに、これもまた墨染の色にはあるぬ袖の涙をあやしく思ひけるにや、盃すゑたる小折敷に書いてさしおこせたる。

思ひ立つ心はなにの色ぞとも富士の煙の末ぞゆかしき

いと思はずに情けある心地して、

富士の嶺は恋を駿河の山なれば思ひありとぞ煙たつらむ) (卷4 p.157)

속세의 유희에 흥을 느끼며 이내 궁중에서의 옛 일을 생각하는 니조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 과거를 추억하고 감회에 젖어들며 유연(遊宴)을 즐기고 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눈물이 당장이라도 쏟아질 것 같은 눈으로 번민에 사로잡혀 있는 듯한 유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치 스스로를 바라보는 것과 같은 동질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늘 속인들과 어울릴 수밖에 없고 이를 생계로 하는 매우 세속적인 여성에 대하여 출가한 자신과 동류의식(同類意識)을 가졌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유녀의 수심이 삶의 터전인 속세로부터 비롯된 것처럼 니조도 속세의 번뇌로부터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니조의 내면은 유녀와 주고받은 와카를 통하여 구체화된다. 수심으로

인하여 출가를 결심하게 되었으며 그 수심은 다름아닌 사랑이라는 것이다. 니조 스스로 출가의 동기와 이유를 밝힌 셈이다. 속세로 인하여 괴로웠던 니조는 출가가 도피적 성향을 띠고 있음을 자기고백을 통하여 암시하였다. 그런데 니조는 다시금 속세를 잊지 못하고 속세의 감정을 정리하지 못하는 모순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니조는 수행여행 중에도 자주 경도로 돌아가고 있다²⁾. 니조의 경도 회귀에 대하여 이마제키 도시코(今関敏子)는 “고후카쿠사인의 일방적인 추방을 받아들일 수 없는 한, 경도는 니조에게 있어 끊임없이 그 의미를 추궁해 나갈 대상인 것이다. 여행을 하고 있다하더라도 존재의 기반은 경도에 있었으며 수도는 늘 출발점이면서 귀착점이었³⁾.”라고 언급하고 있다.

나아가 니조는 속세에 대한 그리움을 곳곳에 남기는 등 모순은 오히려 고질화되며 세속적인 가치관에 대한 집착마저 보인다. 속세로부터 멀리 도피하기 위한 여행이자 출가였으나 니조는 결코 속세로부터, 과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였다. 쇼오2年, 가마쿠라(鎌倉)에 흘러들어온 니조는 7대 쇼군⁴⁾이 수도로 유배되고 8대 쇼군⁵⁾이 가마쿠라로 하향(下向)하는 과정을 지켜보게 된다. 수도로 송환되는 7대 쇼군의 모습을 지켜보며 그의 태생(胎生)에 대한 생각에 잠긴다.

7대 쇼군의 아버지는 고사가천황의 제2황자라 말씀을 드려야 할까, 고후카쿠사인보다는 연장자로서 먼저 태어나셨으므로 7대 쇼군의 아버지가 천황이 되셨다면 7대 쇼군 또한 황위를 계승하실 신분이었다. 그러나 7대 쇼군의 할머니가 신분이 낮은 이유로 7대 쇼군의 아버지는 천황에 등극하지 못하였다. 7대 쇼군의 아버지는 6대 쇼군으로서 가마쿠라에 내려왔는데 보통 사람이 아닌 황자이셨으므로 (중략) 그 후손이므로 신분의 고귀함이란 말할 것도 없었다. 게다가 어머니는 후지와라씨 섭관가(藤原氏摂関家)의 혈통이므로 7대 쇼군의 부모 어느 쪽으로 보든 소홀히 대할 수 없는 신분이라 계속 생각이 드니 무엇보다 눈물이 앞섰다.

(後の嵯峨天皇第二の皇子と申すべきにや、後の深草御門には御年とやらむほどやらむ御まきりにて、まづ出でたまひしかば、十善の主にもなりたまはば、これも位を

2) 니조의 경도 회귀는 3에 언급하고자 한다.

3) 今関敏子 『<色好み>の系譜 女たちのゆくえ』(世界思想社, 1996) p.152

4) 고레야스친왕(維康親王): 가마쿠라 막부 제7대 쇼군. 在職 1266~1289. 아버지는 고사가천황의 제2황자인 무네타카친왕(宗尊親王)으로 가마쿠라 막부의 제6대 쇼군이자, 황족으로서 첫 쇼군이였다.

5) 히사카키라친왕(久明親王): 가마쿠라 막부 제8대 쇼군. 在職 1289~1308. 고후카쿠사인의 황자.

も継ぎたまふべき御身なりしかども、母准後の御事ゆゑかなはでやみたまひしを、將軍にてくだりたまひしかどもただ人にはおはしまさで、(中略)その御跡なれば、申すにや及ぶ何となき御思ひ腹など申すこともあれども、藤門執柄の流れよりも出でたまひき。いづ方につけてか、すこしもいるかせなるべき御事にはおはしますと思ひつづくるにも、まづ先立つものは涙なりけり。)(卷4 p.165)

위의 인용에서 니조는 7대 쇼군의 추방을 접하며 눈시울에 젖고 있다. 정작 그녀가 눈물에 젖는 것은 쇼군의 추방이라는 사건 그 자체가 아니다. 사건의 주인공인 7대 쇼군의 출신으로부터 유발된 연민과 동정이 심연의 눈물을 불러내고 있는 것이다. 니조는 거듭 7대 쇼군의 높은 신분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천황에 즉위할 수 있었으나 이루어지지 않고 어머니 또한 명문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쇼군직으로부터 쫓겨남이 못내 애석하게 느껴졌던 것이다. 여기에는 가문을 중시하는 니조의 가치관이 반영되어 있다. 이는 출가 후 경도에 대한 향수의 일환으로서 들연 형성된 것은 아니다. 속세의 의식의 연속된 흐름이며 표출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그 근거로 속세에서의 번영과 지위 상승을 향한 집착을 근거로 제시하고자 한다.

서위(敍位)·관직 임명을 전해 듣고, 다른 집안의 번창, 동료의 승진을 들을 때마다 상심하지 않은 적 없었으니 그와 같은 망집이 가라앉아 눈물을 자아내는 것도 어찌할 수 없어서 생각을 진정시킬 일이라도 있을까하여 여기저기 유랑하고 있었으므로

(叙位・除目を聞く、他の家の繁昌、朋輩の昇進を聞くたびに、心を痛ましめずを言ふことなければ、さやう妄執しづまれば、涙をすすむるもよしなくはべるゆゑ、思ひをもやなましはべるとて、あちこちさまよひはべれば、)(卷4 p.193)

출가한 니조이지만 세속적인 가치관이 그녀의 감정과 사고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니조는 앞서 자신의 출가가 속세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것이었음을 고백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속적 가치를 중시하는 모습은 이미 출가 탈속한 니조 내부의 모순을 부각시키고 있다.

3. 인생무상의 표방과 속인과의 교류

다음은 쇼오(正応)3年(1290), 니조가 숙원이었던 젠코지(善光寺) 칩거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일행을 보내고 홀로 머무르게 되는 부분이다.

혼자 남겨두고 감을 측은하게 여겨서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을 하므로, “중유(中有)의 여행길에 누가 동행이 되겠습니까. 태어날 때도 홀로 이 세상에 왔습니다. 죽을 때도 또한 마찬가지로입니다. 서로 만난 사람은 반드시 헤어지며 태어난 자는 반드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복숭아꽃이 그 모습도 훌륭하게 피어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뿌리로 돌아갑니다. 단풍은 갖가지 색을 다하여 절정의 아름다움을 뽐내지만 바람에 저서 가을의 빛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헤어짐이 서운함은 일시적인 감정일 뿐입니다.” 등등이라 말하고 홀로 체류하였다.

一人とどめおくことを心苦しがり言ひしかば、「中有の旅の空には誰かともなふべき。生ぜし折も一人来たりき。去りて行かむ折もまたしかなり。相会う者は必ず別れ、生ずる者は死に必ず至る。桃花よそおひいみじといへども、つひには根に帰る。紅葉は千入の色を尽くして盛りありといへども、風を待ちて秋の色久しからず。名残り慕ふは一旦の情けなり」など言ひて、一人とどまりぬ。(卷4 p.170)

위의 인용은 ‘생자필멸, 회자정리’(生者必滅, 会者定離)라는 불교적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다. 니조 혼자 남겨짐을 염려하는 일행에게 인생과 자연의 무상함을 예로 들어 오히려 위로하는 그녀의 의연함이 돋보인다. 속세의 인연에 집착하지 않으며 오히려 초탈한 듯하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정취나 풍류를 찾아 마음을 달래고자 속세에 의탁하는 모습을 보인다.

백만편 염불 등을 올리며 지내는 동안, 근처에 다카오카(高岡)의 이와미(石見)라는 재속의 승이 있었다. 상당히 풍류를 즐기는 인물로 늘 노래를 읊고 관현 등을 연주한다 하여 동료 수행자와 비구니에 이끌려서 가보았더니, 참으로 정취있는 생활에 시골사람 분수치고는 지나쳤다. 이리저리 위로받을 기회이기도 하므로 가을까지는 머물렀다.

(百万遍の念仏など申して、明かし暮すほどに、高岡の石見の入道といふ者あり。いと情けある者にて、歌つねによみ、管弦などして遊ぶとて、かたへなる修行者・尼に誘はれてまかりたりしかば、まことにゆゑある住まひ、辺土分際には過ぎたり。かれといひ、これといひ、手慰むたよりもあれば、秋まではとどまりぬ。)(卷4 p.171)

인생무상을 이야기하며 수행의 결연한 의지를 보이던 니조의 모습은 찾아 볼 수 없다. 게다가 세속적인 풍류와 즐거움에 현혹되어 즐기는 자신의 모습을 변명하는 분위기마저 묻어나고 있다.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속세의 한시적인 즐거움에 머물도록 하였을까. 니조는 그 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이리저리(かれといひ、これといひ)’라며 얼버무리고 있다. 이는 이미 출가한 신분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생각된다. 니조는 불교적인 사고방식을 표방하면서도 속세와의 연을 끊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다. 자신에게 괴로움을 안겨준 속세로부터 멀어지고자 시작한 여행이었으나 속세를 향한 그리움은 깊어지고 이를 속세적인 즐거움에 의지하여 위안하고 있다. 속세에 집착하는 니조의 모순된 모습이 현저하게 드러나고 있다.

각 지방을 수행하면서도 니조는 결코 속세와 유리된 삶을 살아가지 않았다. 일례로 여행지에서 현지 사람들과의 화답(和答), 즉 사람들과의 교류를 들 수 있다.

밤새도록 유희를 즐기고 “날이 밝으면 진정 떠나시는 겁니까?”라고 다이랴노 스케무네(平資宗, 이하 스케무네)가 말을 건네므로 “여행이란 머무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것 아니겠습니까.”라며 답하자 스케무네는 돌아가겠다고 잔이 놓인 쟁반위에 다음과 같이 남기고는 떠났다.

잠시 머물러 주오라고도 말할 수 없는 당신과 나의 관계이기에

눈물의 강(涙川)은 다름 아닌 내 소매에 있었던 것을.

화답할까 생각하는 동안에 스케무네는 다시 돌아와서 여행복 등을 주시며

부디 이 옷만은 늘 걸쳐서 당신과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토록 소원한 그대와 나의 관계일지라도

가마쿠라에 있는 동안은 항상 이렇게 모여서 유희를 즐겼으므로 “이상하군. 어떤 관계일까?”라고 수근덕대는 사람도 있다는 따위의 이야기를 들은 것도 생각나고 해서 화답으로,

늘 마를 틈이 없었던 눈물로 젖은 옷도, 이제는 당신을 그리워하는 눈물로 짙어 가겠지요.

(夜もすがら遊びて、「明けば、まことに立ち給ふやは」と言へば、「とまるべき道ならず」と言ひしかば、「帰る」とて、盃据ゑたる折敷に書きつけて行く。

わか袖にありけるものを涙川しばしとまれと言はぬ契りに

返しつかはしやすするなど思ふほどに、またたち返り、旅の衣など給はせて、

着てだにも身をば放つな旅衣さこそよそなる契りなりとも

鎌倉のほどは、常にかやうに寄り合ふとて、「あやしく、いかなる契りなどぞ」と申

す人もあるなど聞きしも、とりそへ思ひ出でられて、返しに、
ほさざりしその濡衣も今はいとど恋ひむ涙に朽ちぬべきかな)(卷4 p.173~174)

인용문 속에서 파악할 수 있듯이 니조는 경도로 돌아가기 전 가마쿠라에서 교류했던 사람들과 밤새도록 아쉬움을 달랜다. 그중에서도 특히 깊은 친분을 유지했던 스케무네라는 사람과 유연(遊宴) 중 와카를 주고받는 장면이다. 마치 이별을 아쉬워하는 연인들처럼 그리움과 간절함을 담아 화답하고 있다. 정녕 길을 떠나야만 하는가라며 못내 아쉬워하는 스케무네의 말에는 니조의 의중을 떠보고 여행을 만류해보고자 하는 부질없는 희망이 곁들여 있다. 그러나 니조는 결연하게 여행의 의지를 밝히고 있다. 여기서도 니조의 불교적 가치관이 엿보인다. 결국 체념한 스케무네는 와카에 의탁하여 심정을 고백하고 ‘여행복(旅衣)’을 선사한다. 스케무네의 대체물이라고도 할 수 있는 ‘여행복’은 애수를 자아내고 스케무네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표백(表白)하게 한다. 니조는 겉으로는 불교적 무상관을 주창하고 있으나, 실생활은 이와는 달리 괴리가 있었다. 스케무네와의 화답가를 통해서 탈속의 몸이면서 속세와 단절되지 않은 삶을 살았던 니조를 고찰할 수 있다.

니조는 가마쿠라에서 결코 속세의 사람들과 소원하게 지내지 않았다. “가마쿠라에 있는 동안은 늘 이렇게 모인다하여(鎌倉のほどは、常にかやうに寄り合ふとて)”에서 보듯이 니조 스스로도 현지인들과 늘 접촉하고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속세의 사람들과 교류는 물론, 단순한 친분 이상의 관계마저 감지되고 있다. 즉, 연애라고도 명명할 수 있는 감정의 기류가 니조와 스케무네 사이에 흐르고 있는 것이다. 니조는 당시 스케무네와의 관계가 사람들에게 예사롭지 않게 회자되던 일을 언급하면서 그 진상에 대해서는 회피한 채 스케무네에 대한 감정을 와카(和歌)를 통해 밝히고 있다. 자신은 답변을 유보한 채 독자들의 판단에 맡기고자 하였을까. 니조는 이렇게 얼버무리므로써 출가 이후의 연애에 대해서는 묵인해 달라며 호소하고 있는 지도 모른다. 이와 같은 추측은 니조의 아버지의 유언과 관련지어 볼 때 더욱 명백해진다. ‘在俗의 형태를 취하면서 색을 밝힌다는 평판을 남기거나 하는 것은 아주 좋지 않다. 다만, 출가한 후에는 어떠한 일도 지장이 없을 것이다(髪を付けて、好色の家に名を残しなどしむことは、かへすがへす憂かるべし。ただ世を捨てて後は、いかなるわざも苦しからぬことなり。)’⁶⁾ ‘어떠한 일(いかなるわざ)’은 어떤 구체적인 행위나 일을 가리키고 있지 않다. 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다양한 사항을 범주에 넣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특히, 그 앞의 문장이 ‘색’과 관련된 것으로 미루어볼 때 아버지가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연애’와 같은 이성과의 관계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겠다. 이러한 사고의 연장선상에서 유언의 기록은 아버지가 남긴 말을 옮긴 것이면서 니조 자신의 출가 후의 생활, 즉 이상의 인용에서 보듯 이성(스케무네)과의 관계를 변명하고자 하는 의도가 그 근거를 이루고 있다.

이후 이세신궁(伊勢神宮)에서도 신관(神官)등과 와카를 교환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 수도로 돌아온 니조는 다시 이세신궁으로 떠난다. 이세신궁의 외궁(外宮)인 토요우케대신궁(豊受大神宮)를 들러 참배하는데 신관(神官)인 와타라이 쓰네요시(度会常良)가 안내를 자처함으로써 인연을 맺게 된다. 이에 니조는 감사함을 전하고자 와카를 건넨다.

속인(俗人)에 섞여서 널리 중생을 구제한다는 신(神)을 모시는 신관(神官)이기에 비구니 차림의 저에게까지 친절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라고 종이 조각에 써서 나무 가지에 달아 쓰네요시에게 보내드리자,

토요우케신궁의 제신(祭神)이 현신(現身)하는 야마다(山田)의 별판에 자리잡은 토요우케신궁에서는 신은 물론이거니와 신의 말단인 신관, 저희들마저도 구별없이 중생을 구제하라는 맹세를 하였음을 헤아려 주십시오.(권4 p.183)

(おしなべて塵にまじはる末とてや苔の袂に情けかくらむ

木綿四手のきれに書いて、榊の枝に付けてつかはしはべりしかば、

影宿す山田の杉の末葉さへ人をもわかぬ誓ひとを知れ)(卷4 p.183)

이것이 계기가 되어 니조는 쓰네요시는 물론 그 외의 신관들과도 와카를 통한 교류를 갖는다. 토요우케대신궁에서 7일간 머문 니조는 이세신궁으로 건너갈 것을 결의하고 이에 쓰네요시는 와카를 건네온다.

이제 와서 생각합니다. 당신과의 이별을 아쉬워한 나머지, 여행길에 들른 당신과 와카를 주고받으며 친하게 지낸 것이 오히려 후회스럽다고.

그 화답으로,

6) (卷1 p.23)

7) 이세신궁에서는 불교적인 것을 멀리하며 꺼리는 관습이 내려오고 있었다.
久保田淳 校注・訳 『とはずがたり』(小学館 1999) p.465

어찌 그리 후회를 하시는지요. 길가는 나그네가 아니더라도 그 누군들 언제까지고 머물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これにまつ七日籠りて、生死の一大事をも祈請申さむと思ひてはべるほど、面々に宮人ども歌詠みておこせ、連歌いしいしにて明かし暮らすも情けある心地するに、(中略)七日も過ぎぬれば、内宮へ参らむとするに、初めの先達せし常良、

今ぞ思ふ道行き人は馴れぬるも悔しかりける和歌の浦浪

返しには、

何か思ふ道行き人にあらずともとまりはつべき世のならひかは(卷4 p.183~184)

니조가 떠나기로 결심하자 쓰네요시는 담담하게 화답하던 초기와는 대조적으로 마음의 평정을 잃은 모습마저 보이고 있다. 반면 니조는 ‘생자필멸, 회자정리(生者必滅, 會者定離)’와 같은 불교적 무상관을 내세우며 이별을 애석해하는 쓰네요시에게 담담한 필치로 화답하고 있다. 처음 와카를 주고받을 당시의 두 사람의 모습과는 다소 대조적이다.

니조는 자신의 의지로 여행지에서 사람들과 친분을 맺은 후 그 곳을 떠날 때는 늘 불교적 무상관을 앞세워 관계를 정리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쓰케무네와의 관계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는 니조가 비구니로서 불교적인 가치관을 표방하고 살아갔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독자들의 비판을 피해가기 위한 장치라고 생각된다. 비록 속인들과 친분은 맺었으나 자신의 신분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갔다고 호소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이와 같은 의도는 니조 내면의 모순을 부각시킬 따름이다.

일회성으로 그칠 수 있었던 쓰네요시와의 만남은 니조가 건넌 와카를 계기로 지속되었으며 그녀의 의지로 종료되었다. 화답가는 일종의 대화이자 의사소통이었으며 세상과 소통하기를 바랬던 니조와 세상을 잇는 가교였다. 쓰네요시와의 교류를 통하여 각 지방을 수행하며 속세의 사람들과 사귀는 등 현실로 닿는 끈을 놓지 않았던 니조의 모습을 재확인할 수 있다.

이상(以上), 와카를 매개체로 하여 각지의 사람들과 교류하며 그들의 생활 속에 파고들었던 니조의 일면을 살펴보았다⁸⁾. 그녀는 출가 이후 결코 속세와 동떨어진 삶을

8) ① 와카는 사교의 도구인 동시에, 교양과 지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그녀가 각지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는 원인을 제공하였으며, 특히 지방에서는 해방감과 함께 의식적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和歌は社交の具であると同時に、教養・地位を表わすものとなるので、彼女が各地で好遇される因となり、とくに地方では解放感とともにおおいに意識的に用いている。

次田香澄全訳注 『とはずがたり』(講談社,2002) p.301

영위하지 않았으며 세상과 소통하기를 원했다. 괴로움을 안겨준 속세와 끊임없이 대화하는 니조의 모습 속에서 모순을 읽을 수 있다.

4. 고후카쿠사인과의 재회 속에 드러난 집심

쇼오4년(1291), 니조는 이와시미즈하치만구(石清水八幡宮)에서 고후카쿠사인과의 재회한다.

“오늘과 같이 내 너를 몰라보는 일 없었던 것처럼 세월은 흘렀지만 너를 잊지 않은 내 마음의 깊이만은 알아다오.”(중략), “이곳에 머무는 동안 너도 반드시 칩거하여 다시 느긋하게 만나자구나.”라고 일어나시며 몸에 걸친 옷을 세 벌 벗으시고는, “남 몰래 기념으로 삼아다오. 몸에서 멀리하지 말거라.”하시며 하사하셨을 때 내 마음은 과거의 일도, 앞으로의 일도, 내세(來世)에서 어둠에 방황할 일도 모두 잊어버리고 슬픔도 애처로움도 무어라 표현할 길이 딱히 없는데 공교롭게도 날은 맑았으므로(중략) 사람들 눈에 이상하게 비치고 눈에 떨 수 있으므로 고후카쿠사인과의 추억인 옷을 승복 아래에 겹쳐 입은 것도 슬픈데

「ゆゆしく見忘れぬにて、年月へだたりぬれども、忘ざりつる心の色は思ひ知れ」(中略)「御籠りのほどは必ず籠りて、またも心静かに」など承りて、立ち給ふとて、御肌に召されたる御小袖を、三つ脱がせおはせまして、「人知れぬ形見ぞ。身を放つなよ」とて給はせし心の内は、来し方行く末のことも、来む世の闇もよろづ思ひ忘れて、悲しさもあはれさも、何と申しやる方なきに、はしたなく明けぬれば、(中略)人目あやしく目立たしければ、御形見の御小袖を、墨染の衣の下に重ねるも、便なく悲しきものから、(卷4 p.179~p180)

당시 고후카쿠사인 또한 출가한 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조에게 보인 언행은 출가한 신분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이처럼 니조를 향한 예사롭지 않은 마음은 재

② 일반적으로 가마쿠라시대에 들어서면, 勅選集이든 家集이든 題詠의 와카가 압도적으로 많아진다. 유력한 歌人の 家集에는 와카 白首 集成과 같은 것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헤이안시대 이래, 와카의 사교적인 용도도 건재하고 있으며, 니조는 많은 사람들과 와카를 교환하고 있다. 후기의 와카도 고래의 습관은 조금도 변하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 듯하다.

樋口芳麻呂・鷹尾 純・久保朝孝・岩下紀之 『王朝の女流作家たち』(世界思想社, 1995) p.258

속 시의 인연에 대한 미련 즉, 니조를 향한 미련이며, 번뇌의 반영인 것이다. 이는 애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함을 고후카쿠사인 스스로 입증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마제키 도시코(今関敏子)는 이 장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운명의 상대 고후카쿠사인과는 희한하게도 이와시미즈하치만구에서 해후하였다. 이 장면 없이 『도와즈가타리』는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클라이막스이다. 여기서 새삼스레 애정을 확인하고 화해했다고 할 수 있다⁹⁾.”

하룻밤 사이에 고후카쿠사인은 많은 이야기를 한 듯하다. 이에 반해 인용문 속에서 니조의 발언은 한마디도 찾아볼 수 없다. 단지 ‘말로는 이루 다 표현할 수 없었다(何と申しやる方なきに).’는 심경고백으로부터 벽찬 심정을 추측해 볼 수 있을 따름이다.

고후카쿠사인으로부터 옷을 하사받은 순간, 애욕으로 인해 ‘내세의 어둠 속에 방황할 일도 모두 잊어버리고(来む世の闇もよろづ思ひ忘れて) 밝아오는 날을 야속해하며 고후카쿠사인과의 이별을 아쉬워하고 있다. 비구니라는 신분을 자각하면서도 사사로운 감정으로부터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니조의 출가는 세속적 감정이 잔존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특히 고후카쿠사인과의 관계에서의 그리움과 연정이 정리되지 못한 채 진행되고 있었다. 앞서 니조 스스로 주창해오던 ‘생자필멸, 회자정리’이라는 불교적 무상관이 무색해질 정도로 니조의 인간관계에서 고후카쿠사인은 예외적인 인물이었다.

하사받은 옷을 승복 아래에 겹쳐 입음으로써 니조는 자신을 고후카쿠사인에게 얽어매고 있으며 고후카쿠사인은 니조를 자신의 그늘 아래에 두고 있다. 이 착의(着衣)는 니조의 자의(自意)로 인한 행위이면서 동시에 타의(他意)에 의한 것으로 니조 스스로를 애욕에 가두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재속의 감정으로서 접어야 할 고후카쿠사인에 대한 애정이 재회로 인하여 표면화되고, 비구니로서 타인의 시선을 꺼려가며 고후카쿠사인의 사랑의 징표라고 할 수 있는 하사받은 옷을 승복 아래에 감추어 입어야 하는 슬픔은 고후카쿠사인을 향한 집착이자 미련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위의 인용을 통하여 관찰할 수 있듯이 니조는 표면적으로는 수행생활을 내세우고 있었으나 정작 내면은 고후카쿠사인을 향한 망집(妄執)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었다. 착의는 니조의 내부 모순의 반영인 것이다.

9) 今関敏子 『旅する女たち 超越と逸脱の王朝文学』(笠間書院, 2004) p.196

니조가 언급하던 사랑의 수심은 고후카쿠사인과의 재회 이후 구체화되어 내면의 갈등과 집착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니조는 고후카쿠사인을 거듭 뵈고자 갈망하는 장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오늘 만이라도 한 번 더 느긋하게 뵈는 기회가 없을까하고 (중략)머물고 싶은 마음을 누르며 (중략)고후카쿠사인의 신사순례(神社巡礼)만이라도 지금 한번 멀리서나마 보고자, 비구니의 행색으로는 알아차리실 것 같아서 하사받은 옷을 위에 걸치고 궁녀들 틈에 섞여서 보고 있으니(중략) “나와 같은 차림인 것도 반갑구나.”라며 (지난 밤) 이런 일 저런 일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며 어렸을 때의 일까지 갖가지 말씀하셨던 것조차 그대로 귀에 머물고 고후카쿠사인의 모습은 소매의 눈물에 깃들어서 오토코야마(男山)를 뒤로하고 수도를 향해 북 쪽으로 가면서도 나의 혼은 오토코야마에 남은 기분으로 돌아갔다.

今日ばかりもさぶらひて、いまひとたびものどかなる御ついでもや、など(中略)心に心を戒めて、都へ出づる心の中(中略)御宮めぐりをまれ、いまひとたびよそながら見まらせむと思ひて、墨染の袂は御覧じもぞつけらると思ひて、賜はりたりし御小袖を上に着て、女房の中まじりて見まらするに、(中略)「同じ袂なつかしく」など、さまざま承りて、いはけなかりし世のことまで数々仰せありつるさへ、さながら耳の底にとどまり、御面影は袖の涙に宿りて、御山を出てはべりて、都へと北へうち向けども、わが魂は、さながら御山にとどまりぬる心地して帰りぬ。(卷4 p.180~181)

고후카쿠사인을 그리는 마음과 이를 억제하는 마음이 교차되어 나타나고 있다. 즉 고후카쿠사인의 여인으로서의 과거와 비구니라는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며 번민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니조는 체류하여 다시 한번 고후카쿠사인을 알현하고자 하는 마음을 접고 길을 떠난다. 고후카쿠사인을 향한 미련을 절제하고 애욕으로부터 멀어지고자 추스르는 모습이 역력하다. 그러나 그녀는 고후카쿠사인을 그리는 마음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떠나고자 결심한 순간에도 군중 속에 섞여 먼발치에서 고후카쿠사인을 훑쳐보고 출가한 신분에 있다는 동류의식으로 위안을 얻는 모습이 그 증거가 될 것이다. 또한 심지어 몸은 떠나지만 혼만은 고후카쿠사인의 곁에 잔류하였다는 고백도 그 근거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고후카쿠사인을 향한 그리움은 과거로의 회귀이며 속세를 향한 미망이었다. 자제와 미련의 대결 구도를 취하고 있는 이상의 인용으로부터 고후카쿠사인을 향한 니조의 집심을 살펴볼 수 있었다.

니조는 이후 후시미(伏見) 어소에서 고후카쿠사인과 재회하게 된다. 고후카쿠사인은 지금까지 니조의 여행경로를 짚어가며 각 여행지에서의 만남에 의심을 갖는다. “여자는 지장이 많아서 이러한 수행여행은 가능치 않다 들었노라. (중략)깊이 의지하고 오래 만난 인연이 있었을 터이다. 그 외에도 여기저기 곳곳에 동행하는 사람도 없지 않겠지¹⁰⁾.”라며 고후카쿠사인이 의심하기 시작하자 니조는 자기번호를 늘어놓기 시작한다.

“사내와 하룻밤의 인연을 맺은 일이 있다면, 이와시미즈하치만구(石清水八幡宮)의 아미타여래와 관세음, 세지보살의 서원(誓願)에 새어나가, 필시 오랫동안 무간지옥(無間地獄)의 바닥으로 가라앉겠지요. (중략)어렸을 적 황송하웁게도 주상께서 보살펴 주시어 저를 가련해하시는 마음 깊으셨습니다. (중략)성인(成人)이 되어 처음으로 충애를 받은 이상 어찌 이를 가벼이 여기겠습니까? (중략)예상치도 못한 이별을 맞아 덧없이 많은 세월을 보내면서도 임행(臨幸)하신 곳을 찾아 뵈 때마다 지난 날을 그리는 눈물로 소매를 적시고

(一夜の契りををも結びたることはべらば、本地弥陀三尊の本願のもれて、永く無間の底の沈みはべりし。(中略)かたじけなう御まなじりをめぐらして、憐愍の心ざし深くましましき。やうやう人となりて、はじめて恩眷を承りしかば、いかでかこれを重く思ひたてまつらざるべき。(中略)思はざるほかに別れたてまつりて、いたづらに多くの年月を送り向ふるにも、御幸・臨幸に参り会ふ折々は、古へを思ふ涙も袂をうるほし、)(卷4 p.191~p.192)

탈속한 신분과 걸맞지 않게 서로를 향하여 상당한 미련과 집심을 품고 있다. ‘예상치도 못한 이별’이란 다름아닌 니조의 궁궐퇴출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녀의 아버지가 타계한 후 제일의 후원자였던 고후카쿠사인이 사태처리에 나서지 않고 상황을 묵시했던 만큼 고후카쿠사인의 책임도 크다고 할 수 있다. 니조의 비참한 말로를 야기한 자가 세월을 건너뛰어 애육에 사로잡혀 의심하고 질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어소에서 추방당할 당시 니조의 나이 26세였으며 위의 장면에서는 35세였다. 이처럼 상당한 세월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니조 또한 고후카쿠사인의 의심을 해명하고 결백함을 증명하려 애쓰는 모습이 역력하다.

10) 女は障り多くて、さやうの修行かなはずとこそ聞け。(中略)深く頼め、久しく契るよすがありけむ。そのほかまた、かやうの所々具しありく人も、なきにしもあらじ(卷4 p.190~p.191)

출가한 니조에게 세속은 과거였으며, 세속의 인간관계를 대변하는 고후카쿠사인 또한 과거라 칭할 수 있다. 고후카쿠사인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변함없는 애정을 맹세하는 니조는 애욕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유약한 중생이었으며 과거로부터 헤탈하지 못한 범부였다. 니조에게 고후카쿠사인은 과거가 아니며 현재 그 자체였던 것이다. 과거이면서 과거일 수 없었던 고후카쿠사인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것 또한 그녀의 출가가 지닌 모순이며 이중성이었다.

5. 고후카쿠사인의 崩御와 집심의 절정

고후카쿠사인을 향한 니조의 집심은 더욱 고조된다. 니조는 숙원(宿願)이었던 대승경(大乘經)서사공양(書寫供養)을 마무리하기로 결심하고 채류한다. 그러나 수행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고 참법(懺法)을 행하다 곧 고후카쿠사인을 떠올리게 된다.

고후카쿠사인으로부터 비파 곡을 사사했을 때 삼가 받았았던 발목(撥木)을 다시는 켜지 말아야지 단념했으면서도 고후카쿠사인의 손에 익은 물건이라는 것도 잊을 수 없어 법좌(法座) 곁에 놓아 둔 것도

(賜はりたりし御撥を、四つの緒をば思ひ切りにしかども、御手慣れ給ひしも忘れねば、法座のかたわらに置きたるも、)(卷5 p.199)

참회하며 독경을 외는 순간에도 마음 깊은 곳에 자리잡고 있는 고후카쿠사인의 말들을 털어버릴 수 없고 고후카쿠사인과의 과거를 소회하기에 이른다. 그녀의 기억은 어느덧 고후카쿠사인으로부터 비파를 배웠던 9세¹¹⁾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다. 다시 니조는 20세의 기억으로 돌아간다. ‘발목을 다시는 켜지 말아야지 단념했으면서도’가 바로 그것으로 이른바 ‘온나가쿠사건(女樂事件)’¹²⁾으로 인해 어소를 출분하면서 다

11) 卷2 p.83

12)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다. 겐지(建治)3년(1277), 궁중에서 『겐지모노가타리』(源氏物語)속의 온나가쿠(女樂)를 흥내 낼 때 니조는 「아카시노우에(明石の上)」역을 배정받는다. 공연 당일 외조부는 니조를 아랫 좌석으로 밀어내고 그 자리에는 자신의 후처의 딸을 앉힌다.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니조는 고후카쿠사인에게 아무런 보고도 올리지 않은 채 궁을 나와 행방을 감춘다. 이 상황에 대해 외조부는 “내가 말한 것을 문제 삼아 출분(出奔)하다니 이제 궁에 발을 들여 놓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한다.

시는 비파를 켜지 않으리라 결심했던 일이다. 굴욕적이고 수치스런 사건을 반추하게 만듦에도 불구하고 니조는 참법 중 발목(撥木)을 가지런히 곁에 두고 있는 것이다. 고후카쿠사인으로부터 하사받은 물건이기에 그녀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 자체가 번민의 시발점이었다. 발목(撥木)은 고후카쿠사인을 향한 니조의 애욕과 집심의 상징이며 과거 집착의 상징이다.

고후카쿠사인을 추억하는 물건은 비단 발목(撥木)뿐만이 아니다.

공양의 보시로 옷 하나를 바칠 때(중략) 마지막 하나 남은, 살갓에 걸치고 계셨던 옷은 어떤 세상까지라도 함께 하겠다고 마음먹었으니 그 죄가 깊을 것이다.

(布施に奉りしたにつけても、(中略) 御なりしは、いかならむ世までもと思ひて、残しおきたてまつるも、罪深い心ならむかし。) (卷5 p.199~p.200)

서사 공양 등 수행에 정진하는 비구니의 모습을 취하고 있으나 그 내면에는 한 남자를 향한 애욕에 사로잡힌 한 여인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표리부동한 니조의 모습 또한 그녀의 출가가 지니는 모순을 나타내고 있다.

수도로 돌아온 니조는 고후카쿠사인이 병석에 누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다.

꿈에서 보지지 않고서야 어찌 아실까. 고후카쿠사인을 위해 이처럼 나만이 소매에 적시는 눈물을

(夢ならでいかでか知らむかくばかりわれのみ袖にかくる涙を) (卷5 p.206)

이와 같은 니조의 집착은 고후카쿠사인의 병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한층 깊어진다.

“내 목숨을 대신하여 고후카쿠사인을 살려주시옵소서.”라고 기원하였습니다. 이 기도가 성취되어 내가 만일 이슬이 되어 사라진다면 고후카쿠사인을 위해 그리 되었던 것도 당신께서는 모르시겠지라는 등 끊임없이 슬픈 생각이 들어

「わが命に転じ変へ給へ」とぞ申しはべりし。この願ひもし成就して、我もし露と消えなば、御ゆゑかくなりぬとも知られたてまつるまじきこと、などあはれに思い続けられて、(卷5 p.207)

위의 인용에서 니조는 고후카쿠사인이 자신의 애정과 희생을 헤아려주기를 바라고 있다. 비구니라는 신분과 어울리지 않는 바람이다. 고후카쿠사인에게 니조는 비구니가 아닌 한 여인으로 거듭나고 있는 것이다. 고후카쿠사인의 여인으로서 변함없는 애정을 맹세하는 것, 이는 다름 아닌 집심의 발로이다. 여승인 니조에게 고후카쿠사인은 탈속의 범주에서 제외된 절대적 인물인 것이다.

결국 고후카쿠사인은 세상을 뜨게 되고 장례식을 지켜보는 니조의 집심은 격렬해진다.

“관을 멀리서나마 한 번 더 보여 주세요.”라고 부탁하여도 그리할 수 없다하므로 (중략) 시험 삼아 궁녀의 옷을 덮어쓰고 하루 종일 어소에서 있었으나 헛일이었는데 (「御棺を、遠なりとも、いま一度見せ給へ」と申ししかども、かなひがたきよし申ししかば、(中略) 試みに、女房の衣をかづきて日暮らし御所にたたすめどもかなはぬに、) (卷5 p.209)

“장송(葬送)의 준비가 되었습니다.”라며 수레를 대었을 때에 허둥대다 신고 있던 것도 어디로 가버렸는지 (중략) 맨발로 뛰어내린 채로 쫓아가는 동안 여기서 그만 멈출까 그만 설까하고 생각하면서도 되돌아갈 기분도 들지 않아서 수레 뒤를 쫓아가는데 (「事なりぬ」とて御車の寄りしに、あわてて履きたりし物もいつ方へかゆきぬらむ、裸足にて走り下りたるままにて参りしほどに、(中略) ここよりや止まる止まると思へども、立ち帰るべき心地もせねば、次第に参るほどに、) (卷5 p.209~p.210)

어떻게든 저승 가는 산길을 찾아보아야지. 혹여 고후카쿠사인의 망혼(亡魂)의 모습이라도 머물러 있을까하고

(いかにして死出の山路を尋ねみむもしなき魂の影やとまると) (卷5 p.214)

를 통하여 살펴볼 수 있듯이 망자를 향한 집심마저 고조되고 있다. 한편 니조는 이와시미즈하치만구에서 하사받았던 옷을 서사공양의 보시로 봉납하고 마지막 한 벌마저 고후카쿠사인의 보리를 위해 공양한다. 이로써 니조의 고후카쿠사인을 향한 집심은 다소 해소되는 형국을 취한다. 그러나 다음의 인용은 또 다른 집심을 암시하고 있다.

그 꿈을 꾸었던 베개 밑에 있었던 부채¹³⁾를 이제는 유품으로 삼고자 스스로를 달래

13) 나치산(那智の山)에서 철야로 참배를 드리던 중 선잠에 들게 되고, 꿈 속에서 고후카쿠사인을

며 돌아왔을 때

(写経終りははべりしかば、ことさら残し持ちまゐらせたりつる御衣、いつまでかはと思ひまゐらせて、御布施に泣く泣く取り出ではべりしに、(中略)かの夢の枕なりし扇を、今は御形見ともと慰めて帰りはべりぬるに、)(卷5 p.221)

부채를 새로운 유품으로 삼음으로써 고후카쿠사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놓아버리고 있으며 결국 고후카쿠사인에게 귀착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비구니의 신분으로 속세의 인연과 애욕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이에 견잡을 수 없이 집착하는 니조는 자기모순에 빠져있는 것이다.

니조의 나이 49세로 『도와즈가타리』는 끝을 맺고 있다. 출가 시기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32세 이후, 각 지방을 수행하는 비구니로서 등장하고 있다. 적어도 17(고후카쿠사인의 봉어가 니조 49세인가?) 여년이라는 적지 않은 세월을 출가자로 지내면서 늘 고후카쿠사인을 그리워하며 살았던 것이다. 이와 같은 니조의 출가 이후의 삶 자체가 하나의 커다란 모순이었던 것이다.

출가 후에도 니조는 고후카쿠사인과의 추억에 의지하여 살아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후카쿠사인은 니조를 궁에서 추방하고 출가의 길로 들어서게 한 장본인이었으나 결국 니조의 수행생활에 있어서 정신적인 지주이기도 하였던 것이다. 니조는 더 이상 속세에서 모실 수 없었던 고후카쿠사인을 출가라는 형식을 빌어 늘 그리며 가슴 속에 모셔왔다. 고후카쿠사인을 그리워하면서 보리를 위해 기원하는 것, 한 명의 주군 즉 고후카쿠사인에 충의를 다하는 것이 니조의 출가가 지닌 의미인 것이다.

6. 맺음말

수행 생활 속에서도 장소로서의 과거, 즉 경도(京都)를 늘 그리워하는 니조의 모습을 통하여 그녀 내부의 괴리와 모순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경도에서 도피하기 위한 여행이었으나 니조는 경도로부터 헤어날 수 없었다. 아무리 경도로부터 물리적으로 멀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는 늘 경도가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알현한다. 고후카쿠사인은 부채와 같은 형태를 한 물건을 니조에게 하사한다. 꿈에서 깨어나 보니 실제로 곁에 부채가 놓여있었다.

탈속의 신분으로 경도를 품에 그려왔기에 번뇌는 필연이었다. 그러나 번민하는 자신의 모습을 재확인하는 데 그칠 뿐 이를 타파해보겠다는 강한 의지와 실천은 찾아볼 수 없었다. 경도라는 과거의 극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니조의 의식은 경도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경도란 속세의 또 다른 이름으로, 니조에게는 번뇌의 시발점인 동시에 향수의 대상이었다. 니조가 와카를 매개로 끊임없이 속인들과 교류한 까닭도 여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니조의 출가는 모순된 양상을 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여승이 된 니조가 사람으로서의 과거, 고후카쿠사인을 그리워하며 살아간 또 하나의 모순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경도를 향한 향수의 중심에는 고후카쿠사인이 있었으며 궁극적인 그리움의 대상은 바로 고후카쿠사인이었다. 니조의 자기모순과 이중성, 출가의 계기는 결국 고후카쿠사인으로부터 파생된 것이다. 고후카쿠사인은 니조 출가의 시발점이자 종착점이었다.

이상 출가 후의 기록을 통하여 니조의 자기모순과 출가의 계기와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본고는 니조의 내면 성찰을 중심으로 니조의 출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따라서 출가 전 니조를 둘러싼 외부 환경과 일련의 사건 등이 니조의 출가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언급이 미흡하다. 이에 금후, 출가에 대한 외부적인 요소와 상황에 대한 고찰로써 보충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今関敏子 『<色好み>の系譜 女たちのゆくえ』(世界思想社, 1996)
 _____ 『旅する女たち 超越と逸脱の王朝文学』(笠間書院, 2004)
 岸田依子・西沢正史 校注 『とはずがたり』(三弥井書店, 1995)
 久保田淳 校注・訳 『とはずがたり』(小学館, 1999)
 次田香澄 全訳注 『とはずがたり(上)』(講談社, 2002)
 _____ 全訳注 『とはずがたり(下)』(講談社, 2002)
 松村雄二編 『校注とはずがたり』(新典社, 1998)
 三角洋一 校注 『とはずがたり』(岩波書店, 1999)
 樋口芳麻呂・鷹尾 純・久保朝孝・岩下紀之 『王朝の女流作家たち』(世界思想社, 1995)